

+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제21·22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이·취임식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기술인연합회) 제21·22대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7월 15일(목), 여의도 KT빌딩 20층 바이킹 뷔페 무궁화홀에서 열렸다. KBS 김솔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한국방송협회 광덕훈 부회장, KBS 김영해 부사장, 그리고 각 방송사 기술본부장, 직능단체 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창근 기술인연합회장은 취임사에서 “방송은 모든 계층에게 무료 보편적이며, 평등한 서비스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6월 국회의 주파수경매제를 포함한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향후에 비싼 경매비용이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크게 우려했다.

또한, 2013년까지 예정된 ‘디지털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대해 “정부가 교육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통합 교육을 주장하는데, 이는 방송기술력이 높은 방송사 직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현재처럼 기술인연합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여 계속 이뤄져야 하고, 세부시행에도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교육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 ① 양창근 신임 연합회장이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 ② 이재명 전 연합회장이 양창근 신임 연합회장에게 연합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③ 한국방송협회 광덕훈 부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④ 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⑤ 이재명 전 연합회장이 한웅 전 SBS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 ⑥ 이·취임식 축하연주
- ⑦ 이·취임식에 참석한 내빈들

